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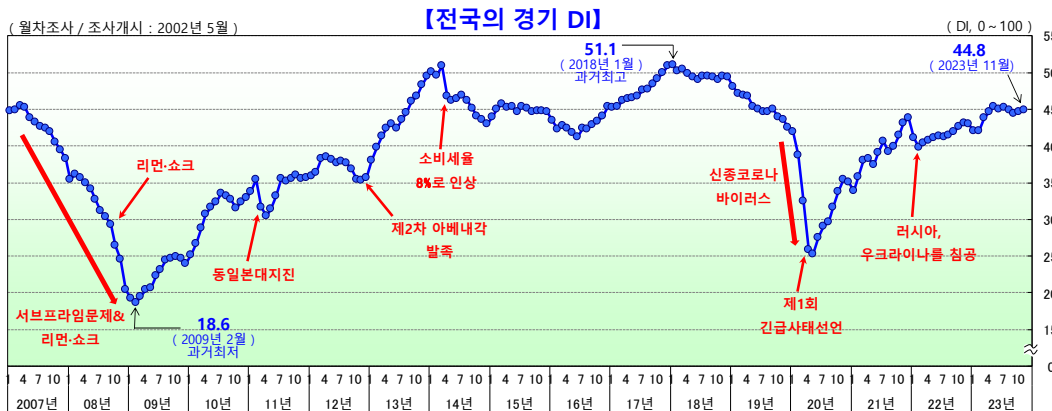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업계·지역으로 양극화 경향이 선명**

~ 개인소비관련이 저조해도, 인바운드확대 등으로 「료칸·호텔」은 과거 최고 ~

(조사대상 2만 6,972사, 유효회답 1만 1,396사, 회답률 42.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과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견조한 자동차 관련과 인바운드를 시작으로 한 관광수요가 뒷받침하여, 10개 업계 중 4개 업계, 51개 업종 중 30개 업종에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5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견조한 자동차 생산과 신차 발매 등이 끌어올린 한편, 공공사업 증가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개선, 「소규모기업」은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 관광 DI는 48.1로 9개월 연속으로 전 산업의 경기 DI를 상회하였다. 특히 「숙박서비스」와 「여객수송서비스/수송설비렌탈서비스」는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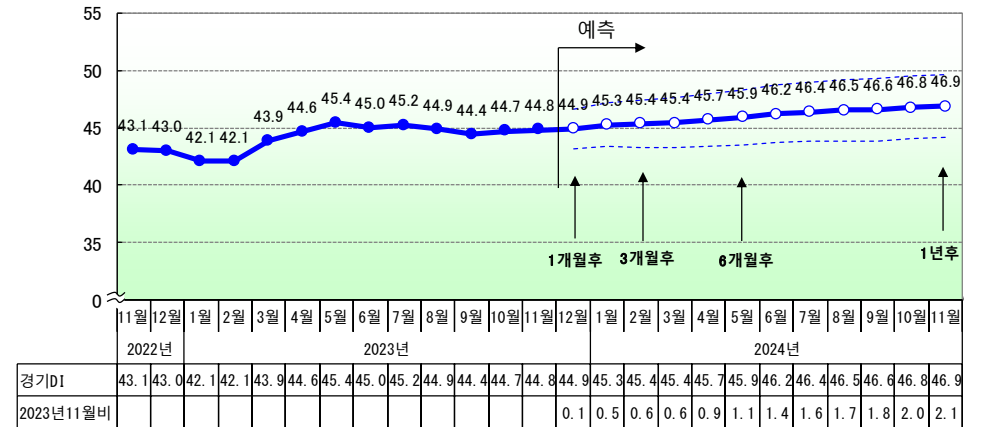
**< 2023년 11월의 동향 : 소폭 개선이 계속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의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11월은 엔저(円低) 경향이 한풀 꺾임과 닛케이 지수가 일시 버블 붕괴 후의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한 가운데, 대형 공공 공사를 포함한 건설 수요의 성황이 폭넓은 업종으로 파급하였다. 또한, 자동차생산이 견조하였고, 인바운드 등에 의한 숙박수요는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인력부족은 계속해서 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보여지는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약한 개인소비 관련은 체감경기의 하락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설비투자과 인바운드 수요의 한 층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개인소비의 행방이 포커스가 될 것이다. 개인소비는 잇따른 임금인상으로 수입 증가가 기대되지만, 높아지는 절약지향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GX 추진과 기업의 업적개선, 경제대책 실시 등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건비 증가와 인력부족의 장기화, 2024년 문제 등은 악재이다. 중동과 동아시아 정세 전망,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경제 움직임도 주시 해야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과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